

시진핑의 '킹 메이커' 쟁칭훙, 중국 최고권력 총돌 막았다

(태자당 망형, 전 국가부주석)

중국 보시라이 사건 막전막후 주요 인물

장쩌민(전 국가부주석) 상하이방 좌장 정치적 영향력 유지	쟁칭훙(전 국가부주석) 태자당 망형 장쩌민·후진타오와 우호적	후진타오(국가부주석) 공산주의청년단 (공청단) 좌장	저우융캉(정법위 서기) 상하이방 장쩌민·쟁칭훙과 친분	시진핑(국가부주석) 태자당 차기 지도자 내정
외병설에도 베이징행	막후에서 조정자 역할	태자당에 공세적 보시라이 제거 성과	보시라이 사태로 위기 기사회생	신중한 처신 사태 관망

보시라이 둘러싼 권력투쟁 중재

중국 정계의 피주머니 쟁칭훙(曾慶紅·73) 전 국가부주석이 움직였다. 공산 혁명 원로의 자제와 친인척 집단을 지칭하는 태자당(太子黨)의 망형으로 불려온 그다. 보시라이(薄熙來·63·태자당) 전 충칭시 당서기 실각 이후 조성된 정국 혼란을 막후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2007년 10월 열린 17차 당 대회에서 그는 국가부주석을 끝으로 정계에서 용퇴했다. 대신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활용해 '킹 메이커'로 뛰었다. 같은 태자당이자 오랜 친분이 있는 시진핑(習近平·59)을 국가부주석으로 천거해 후진타오(胡錦濤·70) 국가부주석의 뒤를 잇도록 차기 권력 구도를 짜냈다. 이후 쟁은 현실 정치에서 한걸음 뒤로 물러나 존경받는 원로로 자



보시라이

자신의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다. 쟁과 교감한 장은 베이징에서 군부 지도부를 만나 정치권을 향해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한다. 첫째, 보시라이는 당 기율 위반과 부인 구카이라이(谷開來)

의 영국인 사업가 살인 혐의로 처벌이 불가피하다. 둘째, 보시라이 비호 의혹을 받은 저우융캉(周永康·70) 정법위 서기(정치국 상무위원)는 (보시라이 사건 와중에) 일부 실수가 있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잘해왔기 때문에 경위조사는 하되 처벌하지 않는다. 셋째, 차기 권력 구도를 확정할 18차 당대회는 올가을 예정대로 치르고 당초 합의대로 후진타오는 시진핑에게 권력을 이양한다.

후 주석 측에도 전달된 이런 메시지가 약발이 먹힌 정황 증거는 관영 신화통신의 10일 보도 이후 전개된 양상을 통해 상당 부분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보시라이는 10일 정치국원 직무가 정지됐고 조사를 받고 있다. 저우융캉은 12일 정법위 행사에 출석해 후 주석에게 충성을 재확인하는 발언을 한 뒤 18~20일 후베이(湖北)성을 시찰했다. 견제를 과시한 셈이다.

당 대회 연기 소문을 일축하듯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정상적인 해외순방도 잇따랐다. 원자바오(溫家寶·70·서열 3위) 총리는 20일부터 베이징을 비우고 아이슬란드·스웨덴·폴란드·독일을 순방 중이다. 자칭린(賈慶林·72·4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은 25일까지 뉴질랜드·브루나이·태국을 순방하기 위해 13일 베이징을 떠났다. 리창춘(李長春·68·5위) 선전 및 이념담당 정치국 상무위원도 15일부터 영국·캐나다·콜롬비아·인도네시아 등 4개국을 순방 중이다. 5년마다 한 번 열리는 중요한 당 대회가 연기될 정도로 권력투쟁이 여전히 심각하다면 상무위원들의 장기 해외순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도마뱀 꼬리 자르듯 보시라이이 숙청을 발표한 4월 10일을 전환점으로 중국 정치권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쟁칭훙의 막후 조정자 역할이 그만큼 먹혀들었다는 것이다.

장세정 기자 zhang@joongang.co.kr

이달 초 장쩌민 전 주석 베이징 초대

장, 군 수뇌부 소집해 특별 메시지

보시라이 처벌, 저우융캉엔 면죄부

후진타오 주석도 교통정리에 동의

리매김해왔다. 이런 그가 왕리훙(王立軍) 충칭시 공안국장의 미국 영사관 망명 기도(2월 6일)와 그에 따른 보시라이의 충칭시 당서기 해임(3월 15일)으로 정국 혼란과 계파 갈등이 노출되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국에 서버를 둔 보신망(博訊網)에 따르면 쟁이 막후에서 움직인 것은 이달 초순. 1970년대 내정부장(장관)을 역임한 부친 쟁산(曾山) 타계 40주년 추모 행사를 4월 초 베이징에서 열면서 이 행사를 계기로 정치적 수완을 발휘했다. 줄곧 상하이(上海)에 머물러온 장쩌민(江澤民·86) 전 국가부주석은 쟁이 베이징으로 초대한 것. 거동이 불편한 장은 쟁의 제안을 뿌리치지 않았다. 장의 숙부인 장상징(江上青)이 쟁의 부친 쟁산과 항일투쟁 당시 상하이에서 지하 활동을 함께했던 인연이 있다. 장은 오랜 측근 에다 집안끼리 인연이 있는 쟁의 초대에 응하는 형식으로 베이징 무대에 등장했다.

쟁은 이 과정에서 장의 영향력을 지렛대로

2012학년도 후기 특별전형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남·여)

Think Road

생각의 길을 내다

오늘의 배움이 쓸모없다면 내일의 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향한 길을 만들어주는 배움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통덕의 생각. 그 특별한 생각이 모여 길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Think Road - 동덕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TESOL)학과, 일본어문학과, 프랑스어문학과, 독일학과, 중국학과, 국사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국제경영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식품영양학과, 보건관리학과, 약학과, 정보통계학과, 응용화학, 전자계산학과, 체육학과, 무용학과, 회화학과, 공예학과, 큐레이터학과, 음악학과(상위선도), 패션전공(관악전공), 여성학과, 한국어학과, 창작문화학과

석·박사통합과정
경영학과, 식품영양학과

박사학위과정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TESOL)학과, 일본어문학과, 경영학과, 식품영양학과, 아동학과, 약학과, 전자계산학과, 체육학과, 무용학과, 미술학과, 큐레이터학과, 음악학과(상위선도), 패션전공, 관현악전공, 이론전공, 여성학과

패션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패션학과 (패션디자인 & 테크니컬디자인전공, 패션마케팅전공, 패션미디어 & 스타일링전공, 패션뷰티디자인전공)

석·박사통합과정
패션학과 (패션디자인 & 테크니컬디자인전공, 패션마케팅전공, 패션미디어 & 스타일링전공, 패션뷰티디자인전공)

박사학위과정
패션학과 (패션디자인 & 테크니컬디자인전공, 패션마케팅전공, 패션미디어 & 스타일링전공, 패션뷰티디자인전공)

특수대학원(아간), 석사학위과정

디자인대학원
사각 & 실내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교육컨설팅전공

공연예술대학원
무용과, 실용음악과, 연극심리학과(연극치료, 모델전공)

비만이용량장대학원
임상영양학과, 미용보건학과, 향정예스테틱과

문화산업예술평화대학원
MICE경영학과, 문화콘텐츠산업학과

융복합적 연구 선진 대학원

행사 접수: 2012. 5. 7(월) 09:00 ~ 5. 14(월) 17:00까지(인터넷)

서류 제출: 2012. 5. 16(수) 17:00까지(도착분(영문))

전형일: 일반·전문대학원: 2012. 6. 1(금) 10:00
특수대학원: 2012. 5. 31(목) 10:00
[단, 유아교육전공 및 교육컨설팅전공: 2012. 5. 31(목) 18:00 / 패션디자인학과: 2012. 6. 1(금) 11:00]

합격자 발표: 2012. 6. 22(금) 예정

홈페이지: <http://grad.dongduk.ac.kr>

입학 문의: 02-940-4107~8

동덕여자대학교대학원

치매 단백질 응집과정·원인 첫 규명

숙대 합시현 교수팀, 치료제 길 열어 미국립과학원회보 온라인판 게재

숙명여대 화학과 합시현(42·여) 교수팀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의 응집 과정과 원인을 원자 단위에서 규명하는데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치매 치료제 개발에 새 장이 열렸다고 함 교수팀은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24일 세계적 학술지인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의 온라인판에 실릴 예정이다. 함 교수는 "가정과 이론에 치중한 기존 연구와 달리 실제 단백질을 갖고 실험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1991년 숙명여대 화학과를 졸업한 뒤 98년 미국 텍사

스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치매 단백질 응집 과정과 원인을 밝히는 것은 치매 치료제 개발의 핵심이다. 뇌 안의 신경 세포에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결합하며 나오는 독성 응집체 때문에 치매가 생기기 때문이다.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 원리를 알아낸 뒤 이를 막을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는 게 바로 치매 치료제다. 함 교수는 또 "이번 연구로 치매 말고도 단백질 응집으로 발생하는 파킨슨병·광우병·암 등 많은 질병의 치료제 개발에도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동안 세계의 과학자들이 단백질의 응집 현상에 대한 연구에 열중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JTBC 채널 15 하이라이트 채널·프로그램 안내는 02-751-6000

PM 8:05	일일시트콤 '청담동 살아요'	밤 10시 메인뉴스 시대를 연	JTBC 뉴스 10
PM 8:45	월화 미니시리즈 '해파연당'	PM 11:00	닥터의 승부

이 로고가 표시된 중앙일보 사진을 스캔서치 앱을 다운로드 받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촬영하면 JTBC의 뉴스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전역도 못하는 중령'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 지난 4월 2일자 17면 '여교수와 바람 피우다 전역도 못하는 중령' 기사와 관련해 당사자인 B중령은 "군 당국의 전역신청 반려 사유는 A교수와와 불륜 때문이 아니라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며, 소송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인터뷰를 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